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

국어 독서 2주차 부록

서성수 국어 독서 7

〈핵심 독서〉

1. 일등급의 독해

글을 읽고 대략적인 구조만 기억이 남거나 어려웠던 용어들만 몇 개 떠오른다면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1 등급 이상은 단순하게 개념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 아니라 개념과 개념을 설명하고 구체화하는 내용들에 집중한다.

또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까지 고민한다.

그들은 칸트의 경험과 인식이라는 글에서 경험과 인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경험과 인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경험과 인식을 칸트는 글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경험과 인식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한다

2. 1등급을 받기 위한 독해

① POINT1 서론 독해

글의 기초인 서론에 시간을 충분히 투자!

첫째/ 개념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

둘째/ 서론의 내용을 이해!

셋째/ 가능하면 이후 내용을 예측!

② POINT2 주제 독해

글의 핵심과 문제 풀이를 위해 주제를 파악!

첫째/ 문단의 주제를 파악하라!

둘째/ 문단에서 주제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을 파악하라

셋째/ 이 내용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파악하라!

③ POINT3 세부 정보 독해

문제 풀이와 빠른 독해를 위해 어려운 정보를 파악!

첫째/ 상관 관계(A= B+C등의 수식)는 정리하고 넘어가라!

둘째/ 비교 대조(반면, 비해, 만)는 정리하고 넘어가라!

셋째/ 정의(인, 이란)는 정리하고 넘어가라!

3. 자료 활용법

자료는 중간 난이도의 글이다.

독해는 5분 이내로

문제는 2분 이내로 풀어본다

독해를 할 때는 크게 3가지를 정리한다

글을 읽으면서 서론을 이해해보고

문단의 주제를 찾고

중요한 세부 정보를 정리해 본다.

이후에 정리된 프린트와 비교해보면서 독해 정리!

결과로 답한다 서성수 국어

서성수 국어 독서7

글을 읽은 뒤 한번 더

글의 어려운 부분에 이해(색깔펜 부분)와

어휘를 바꿔 쓰는 내용 정리를 해주자!

문제 풀이는 독서 문제의 원리를 미리 정리한다.

독서에서 문제는 글의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문제는 글의 정보를 일반화 하거나 구체화 하는 방식으로 변형해서 만들어진다.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끊임없이 글의 말로 바꿔준다.

P 이면 Q 이다라는 문제가 등장하면

P 를 글의 말(P')로 바꾸고

Q 도 글의 말(Q')로 바꾸어 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어 본 내용을

프린트와 비교 하고 확인하다.

서성수 국어 독서7

[1-4] 2016 고3 10월 모의고사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의 표장(標章)을 말한다. 어떤 표장이 상표로 등록 받아 배타적 독점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표장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해 주는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POINT1 서론 독해>

1. 상표- 업무와 관련된 상품!/ 타인의 상품과 구별/ 기호 문자 도형 같은 표상(정보!)
2. 상표- 배타적 독점권- 식별력(이해!)
3. 구분해주는 기준과 내용을 예측(예측!)

상표법 제6조 '상표 등록의 요건'에 따르면, 상품의 보통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기본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통명칭이란 사과, 소금 등 통상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명칭을 말한다. 그러나 보통명칭이라 하더라도 문자의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된 경우, 또는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 등과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있다. 관용하는 상표란 특정인의 상표였던 것이지만 상표권자가 상표 관리를 허술히 하여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용 표장도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과 결합될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있다.

<POINT2 주제 독해>

상품의 보통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관용하는 상

품은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예외도 존재함

<POINT3 세부 정보 독해>

보통 명칭- 사과 소금 등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명칭

관용하는 상표- 특정인의 상표였던 것이지만 상표 관리를 허술히 하여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관용적으로 사용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생산 방법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記述的) 표장만으로 된 상표 역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표장만으로는 그 상품의 출처가 식별될 수 없으며, 경쟁업자도 자기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표장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POINT2 주제 독해>

기술적 표장만으로는 상표 인정X& 이유

이 밖에 국가명이나 대도시명 등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 '박'이나 '이'와 같이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법인명 등 흔히 있는 명칭만으로 된 상표, 그리고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등도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상품의 산지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 단체 표장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POINT2 주제 독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만& 흔히 있는 성& 법인명등은 인정x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서성수 국어 독서7

“그러나” 산지는 직접 만드는 사람으로 구성된 법인이 쓰면 단체 표장으로 상표 등록O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표장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표장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통명칭 표장이나 관용 표장이 아니라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될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 등록을 출원하기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 그것은 이미 상표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경쟁 업자들의 자유 사용을 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부정 경쟁을 목적으로 한 제3자의 상표 사용을 막아 상표권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상표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다.

〈POINT2 주제 독해〉

구별되지 않는 도형과 문자들 결합해 새로운 관념- 상표(구분& 배타적 독점권)O

“또한” 사용자에게 의한 식별력도 상표 인정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라도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들이 있는데, 이는 상표법 제7조에 제시되어 있다. 국기나 국제기관의 명칭과 같은 공공 표장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 먼저 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누구의 상품인지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 등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POINT2 주제 독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어휘 바꿔쓰기〉

배타적- 특정한 대상한테만 허락

식별- 구별하고 알아차리기

관념- 개념과 표상. 알고 있는 모든 것

기술적- 쪽 쓰기

출원- 서류를 냈. 등록

〈독해+〉

/식별력과 상표/

식별력이 상표 등록의 하나의 조건. 같은 말X

/새로운 관념/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별이 된다는 것! 그냥 동그라미 세모 같은 도형이나 문자들과는 달리 새로운 관념을 식별력을 가진

/상표로서 기능/

상표로서 기능한다는 것은 다른 상품들과 식별된다는 것!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생기면 이미 구분이 되는 것이기에 독점적 사용권을 보장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며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것을 막음

1. 윗글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①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해설: 상표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서성수 국어 독서7

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의 표장(標章)

② 보통명칭 표장과 관용 표장의 차이는 무엇인가?

해설: 보통명칭이란 사과, 소금 등 통상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명칭

관용하는 상표란 특정인의 상표였던 것이지만 상표권자가 상표 관리를 허술히 하여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

③ 어떻게 하면 보통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가?

해설: 보통명칭이라 하더라도 문자의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된 경우, 또는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 등과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

④ 출원한 상표의 식별력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인정받는가?

해설: 상표의 인정의 측면에서 식별력을 이야기했을 뿐 식별력이 인정받는 과정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음

상표와 식별력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다면 어려운 문제

⑤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왜 등록을 받을 수 없는가?

해설: 이러한 표장만으로는 그 상품의 출처가 식별될 수 없으며, 경쟁 업자도 자기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표장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2. 윗글에 근거할 때, 출원하려는 상표의 등

록 가능성을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① 이것은 식별력이 인정되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제 기관의 명칭과 같더라도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있을 거야.

해설: 원래 식별력의 인정은 상품 등록과 연결 BUT 국제 기관은 식별력이 있더라도 상표 등록이 안 된다고 봐야 함

② 이것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자만으로 법인을 구성하여 출원한다면 상표로 등록 받을 가능성이 있겠군.

해설: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자만으로 법인을 구성을 단체 표장으로 상표 출원으로 봐야 함. 글에서는 이 경우 상표권을 인정한다고 함

③ 이것은 동업자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상표로 등록 받을 가능성이 있겠군.

해설: 동업자들이 관용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관용적인 표장임을 나타내기에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로 봐어도 상표 등록은 어려움

④ 이것은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표장이므로, 식별력이 인정 되지 않는 다른 표장과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더라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을 거야.

해설: 새로운 관념의 형성은 식별력과 상표등록과 연결되기에 비록 원래 표장이 식별력이 없더라도 상표 등록이 가능

서성수 국어 독서7

⑤ 이것은 상표법 제7조에 제시되어 있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 거야.

해설: 간단하고 흔한 것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7조가 말하는 식별력이 있는 표장과는 연결되지 못함. 또한 7조는 식별력이 있더라도 공공의 표장은 상표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했음

3. 윗글과 <보기>의 내용을 함께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김 씨는 특허청에 산지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였지만 등록이 거절되었다. 그러자 김 씨는 자신이 30년 전부터 이 상표로 상품을 생산해 왔다는 자료와 함께 출원 전에 지역 신문에 자신의 상품이 소개되었던 기사, 그리고 특허청의 등록 거절 소식이 전국 신문에 보도되었던 기사를 근거 자료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심판 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는 것은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표장에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범위가 전국에 걸쳐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하였다. 이 판례를 근거로 하여, 특허심판원에서는 (㉠)

보기 독해:

김씨는 '개인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관한 특허권의 요구

특허청은 거절

심사원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라는 것을 통해 상표 등록을 심사

(가)는 현저한 지리적 사용과 관련한 대표 표장을 이야기 하기 보다는 문맥상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연결되어야 함!

① 청구인의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청구인 지역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므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해설: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한다는 것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는 배경& 기각했다와 연결되기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한다는 모방과 부정경쟁으로 읽어야 함

김씨가 이미 식별되는 상품을 모방했다고 볼 수는 없기에 오답

② 청구인의 상표가 출원 후에는 수요자들에게 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해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출원 전부터 청구인의 상품으로 인식되어 있어야 함

여기서는 출원 후라고 했기에 오답

③ 청구인의 상품이 오랫동안 생산되어 왔기 때문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해설: 오랫동안 생산은 수요자에 대한 인식과는 상관이 없는 선지 따라서 오답

④ 청구인의 상표가 처음에는 관용하는 상표였지만 현재 기술적 상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해설: 관용하는 상표는 관리 소홀과 동업자들이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서성수 국어 독서7

자연스럽게 늘 쓰던 대로 쓴다로 읽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다. 따라서 오답

⑤ 청구인의 상표가 출원 전에 수요자들에게 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해설: 출원 전에 현저하게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아니다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상표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에 선지 자체는 모순점이 없음

문제는 어떻게 출원 전에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것인가 임

보기에 출원 전에는 지역 신문에만 알려졌고 출원 후 전국 신문에 등장했다는 근거를 통해서 출원 전 현저하게 인식되지 않았다가 참임을 판단할 수 있음

4. 밑글의 ㉠과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상표법 제53조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때 ㉡ 먼저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디자인권 등과 저촉*되는 경우, 그 상표의 사용은 해당 특허권·디자인권을 소유한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등록 상표를 남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금지권은 유지되므로,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저촉 : 서로 다른 종류의 권리가 서로 부딪

치거나 모순됨.

보기 독해:

등록 상표 사용할 때 특허권 디자인권자의 동의 필요<추가>

글에서처럼 등록 상표에 대한 권리의 유지 즉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등록 받지X

① ㉠과 ㉡는 모두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해설: a는 누군가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기에 상표권자의 권리를 약화

② ㉠은 누군가 권리를 침해할 경우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는 그렇지 않다.

해설: a 역시 상표법 53조에 의해 보호

③ ㉠은 소유권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는 다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의 보호를 받는다.

해설: a와 다수의 이익에 관한 부분은 아예 나오지 않음. 둘 다 권리의 소유권자를 보호

④ ㉠은 출원된 뒤부터 상표권자의 권리가 인정되지만, ㉡는 출원 이전이라도 해당 소유권자의 권리가 인정된다.

해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출원 전으로 읽어야 하고 a는 출원 이전과 이후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기에 오답

⑤ ㉠은 그보다 늦게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는 그와 저촉되는 등록 상표의 사용을 제한한다..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서성수 국어 독서7

해설: "㉠먼저 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누구의 상품인지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 등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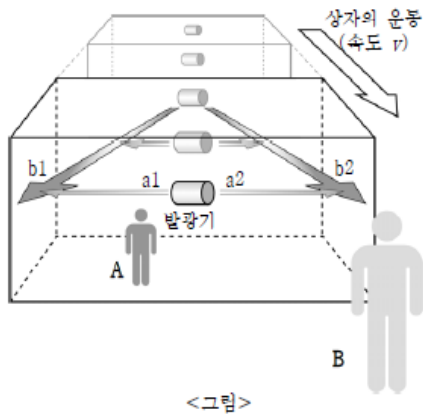
"저촉되는 경우, 그 상표의 사용은 해당 특허권·디자인권 등을 소유한 자의 동의를 얻어야"

[5-1] 2016 고3 10월 모의고사

아인슈타인 이전 과학자들에게 에너지와 질량은 별개의 독립적인 물리량이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E = mc^2$ 이라는 공식으로 에너지(E)와 질량(m)의 관계를 밝혔다.

<POINT1 서론 독해>

1. 에너지 ↓ / 질량 ↓
2. 아인슈타인- 에너지 질량은 독립적인 물리량은 아님/ 에너지와 질량의 양의 상관 관계 정리
3. 질량과 에너지의 구체적인 관계를 예측



㉠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상대성의 원리'와 '광속 일성의 원리'라는 두 가지 공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림>과 같은 ㉠가상의 사고(思考) 실험을 통

해 이해할 수 있다. 큰 상자가 있고 상자 안에는 A와 발광기가 각각 상자에 대해 정지 상태에 있다. 상자 안의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상자 밖의 B를 향해 그 상자는 등속도로 접근해오고 있다. 그리고 발광기가 어느 순간 좌우를 향해 완전히 같은 세기의 빛(에너지)을 발사한다. A의 입장에서 본다면, 발광기가 빛을 발사했지만 <그림>의 a1, a2와 같이 서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동시에 발사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반동은 완전히 상쇄되어 발광기는 빛을 발사한 후에도 상자 안에서 상자에 대해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B의 입장에서는 상자가 자신을 향해 접근해 오기 때문에 당연히 상자 안의 발광기도 상자와 같은 속도로 접근해 온다. 그런데 발광기가 발사한 두 빛은 <그림>의 b1, b2와 같이 비스듬히 좌우로 퍼지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빛의 발사로 인한 반동이 완전히 상쇄되지 못한다. 상쇄되지 못한 반동은 발광기의 운동에 감속 요인으로 작용하여, 상자의 속도에 비해 발광기가 접근해 오는 속도가 느려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발광기의 운동이 A와 B에게 각각 다르게 보이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POINT2 주제 독해>

사고 실험의 결과:

동일한 운동이 상자 안에 있는 사람과 외부에서 관찰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르게 보임/ 모순

이와 같은 모순과 관련하여 아인슈타인은 ㉠ 빛의 발사라는 에너지의 방출이 발광기 질량의 손실을 의미한다면, 빛을 방출하는 것에 따른 감속과 질량을 잃은 것에 따른 가속이 균형을 이루면서 발광기가 상자와 같은 속도로 B에게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서성수 국어 독서7

접근한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A와 B가 보는 상황은 다르지 않으며, 서로 다른 물리량이라고 생각되었던 에너지와 질량이 광속(c)을 환산인자*로 하여 서로 환산될 수 있는 물리량이 된 것이다.

<POINT2 주제 독해>

모순에 관한 아인슈타인의 설명:

빛E의 방출= 질량의 손실/ 같은 상황/E& 질량 환산 가능

아인슈타인의 공식은 물체의 질량이 그 물체가 가진 잠재적인 에너지에 대한 척도이며, 물체가 에너지를 방출하면 그 질량은 E/c^2 만큼 작아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 광속(c)이 진공 중에서 대략 초속 30만 km이므로, 광속을 제곱한 값(c^2)은 대략 $9 \times 10^{16} \text{m}^2 / \text{s}^2$ 의 천문학적인 수가 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아인슈타인의 공식은 우리에게 매우 작은 질량의 물질도 엄청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고 할 수 있다.

<POINT2 주제 독해>

아인슈타인 공식은 질량이 잠재적 에너지의 척도라는 것과 에너지와 질량 간의 관계를 보여줌

<POINT3 세부 정보 독해>

" $E = mc^2$ " " $M = E/c^2$ "

" $E \downarrow \rightarrow M \downarrow$ "

에너지 방출이 클수록 질량 감소도 큼

* 공리 : 수학이나 논리학 따위에서 증명이 없이 자명한 진리로 인정되며,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 데 전제가 되는 원리.

* 환산인자 : 어떤 단위로 표시되는 양을 다른 단위로 나타내기 위하여 곱하거나 나누는 인자.

<어휘- 바꿔 쓰기>

공리- 전제하는 원리

반동- 반작용. 뒤로 가는

모순- 다름. 상충

척도- 기준

<독해+>

/상대성원리& 광속 일정의 원리/

상대성 원리와 광속 일정의 원리는 그림의 전제로 별다른 설명이 없을 때에는 그림의 전제라는 정보로만 남기기& 읽기 자료 참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상대성 원리는 자연의 물리 현상 법칙은 항상 같은 형식을 취한다는 것!

광속 일정은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를 통해 아인슈타인의 거리 속력 시간의 관계에서 휘는 시 공간의 개념을 생각

/작은 질량의 물질도 엄청난 에너지로 전환 가능/

" $E = MC^2$ "에서 C값이 워낙 크기에 질량 자체의 값이 매우 작아도 그에 따른 잠재적 에너지의 값은 매우 큰 것

5. 윗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① 진공 중에서 빛의 속도

해설: 광속(c)은 진공 중에서 30만 km/s

② 아인슈타인의 공식에서 광속의 역할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서성수 국어 독서7

해설: C는 환산 인자로 에너지와 질량의 환산에 쓰임

③ 광속의 변화 이유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

해설: 광속의 변화 이유는 등장하지 않음 오히려 광속 일정의 원리를 제시

④ 아인슈타인의 공식에 나타난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

해설: "E=MC²" "E/C² 만큼 질량이 감소"

⑤ 에너지와 질량의 관련성에 대한 아인슈타인 이전 과학자들의 생각

해설: 이전의 과학자들은 둘을 독립적인 관계로 인식

6. ㉠에 근거하여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전환 전후의 에너지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 전체의 질량과 생성물 전체의 질량은 같다.

보기 독해: 에너지와 질량에 관한 부분

에너지의 총량은 같고! 질량의 총량도 같음!

(글: 에너지가 방출하면 즉 줄어들면 E/C²만큼 줄어든다,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

①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엄밀한 의미에서 에너지의 총합은 증가하겠군.

해설: 에너지끼리의 변환이기에 보기를 봐야 함. 보기에 따르면 에너지의 총합은 같아야

②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엄밀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전환 과정에서 질량의 변화 여부도 고려되어야겠군.

해설: 에너지 보존에 대한 보기의 내용과 에너지가 방출되는 만큼 질량의 변화가 있다는 글의 내용과 모두 존재, 참

③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의 질량보다 생성물의 질량이 크다면 반응 결과에 따른 생성물에 잠재된 에너지는 증가하겠군.

해설: 생성물의 질량이 커진다는 것을 가정했다는 것이 중요!!! 생성물과 에너지의 관계를 물었기에 글의 정보를 활용해야 함. "E=MC²" 이기에 생성물의 질량이 커진 건 잠재 에너지가 커진 것.

이는 반응 물질에서 생성 물질을 만드는 반응에서 많은 에너지를 흡수한 것.

④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의 유입이나 유출이 있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겠군.

해설: 질량과 에너지는 같이 가기에 에너지의 유입과 유출은 질량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는 생성물과 반응물의 질량이 같다는 보기 내용과는 맞지 않음

⑤ 화학 반응에서 발열 등으로 질량 손실이 일어난다고 해도 일상적인 수준에서는 감지하기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서성수 국어 독서7

어려울 만큼 적은 양이겠군.

해설: "M= E/C²"에서 아무리 열 방출로 에너지의 변화량이 커도 C 값이 워낙 커 질량의 손실은 크지 않음

7.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에서 빛의 방출에는 반동이 수반된다고 본다.

해설: 안에 있는 사람이든 밖에서 관찰하는 사람이든 에너지 방출에 대한 반작용과 뒤로 밀리는 힘은 존재하고 있음

② ㉠에서 A와 B가 인식하는 빛의 진행 방향은 다르다고 본다.

해설: 그림을 보더라도 A는 안에 있기에 빛이 양 옆으로 진행하고 반동도 상쇄되는 반면 B의 경우에는 사선의 형태로 빛이 진행하며 상쇄되지 못해 그 발광기가 상자보다 더 느리게 다가오게 됨

③ ㉡에서 에너지의 방출은 질량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해설: 빛E와 질량은 서로 환산가능. 에너지의 손실은 질량의 손실

④ ㉡에서 A와 B는 모두 발광기를 상자에 대해 정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본다.

해설: A와 B에게 다르게 보이는 모순이 해결됨! 보는 상황은 다르지 않은 것!

반동으로 인한 감속과 질량 감소로 인한 감속이

함해져 발광기도 상자와 같은 속도로 움직임. 즉 자연 물리 현상의 형태가 일정하다는 상대성의 원리임

여기서 중요한 건 글과 선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고 바로 넘어가는 연습!

분명히 글에서 보는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했기에! A가 "상자에 대해" 정지해 있다고 한 순간 바로 정답!

굳이 "인식"에 집중해 B는 등속 운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A는 정지해 있는 것을 인식 아닌가 등의 고민을 하지 말기!!!!

"상자에 대한' 발광기의 정지"이기에 둘 다 참

⑤ ㉡에서 발광기에서 발사한 두 방향의 빛은 결과적으로 발광기의 운동을 변화시킨 것으로 본다.

해설: 빛의 방출은 반동으로 인한 발광기의 감속과 질량의 감소로 인한 증속 모두를 만듦. 이 감속과 가속은 결국 상쇄 됨!. 변화X

[8-] 2016 7월 모의고사

세계관이란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일관된 견해로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POINT1 서론 독해>

1. 세계관-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일정한 견해
2. 세계관이 보이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그를 바탕으로 전개될 도덕적 삶을 예측

성리학은 이(理)와 기(氣)의 개념에 바탕을 둔 세계관을 통해 도덕적 삶의 방향을 제시한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서성수 국어 독서7

다. 이(理)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에 내재된 보편적인 이치나 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이(理)는 모든 사물에 본성으로 내재한다. 특히 성리학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이치로서의 선한 본성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한편 성리학은 개개인의 도덕성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데에 차이가 생겨나는 이유를 기(氣)에서 @찾는다. 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의 도덕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칫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기를 다스리기 위한 부단한 수양을 통해 순수한 본성이 오롯이 발현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을 위해 성리학에서는 내면에 대한 관조를 통해 경건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여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기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POINT2 주제 독해>

성리학의 이기의 개념&도덕적 삶을 사는 방법

: 관조를 기를 통제& 순수 본성을 발현

<POINT3 세부 정보 독해>

이- 만물에 내재된 보편적인 원리. 이치. 선한 본성. 발휘 되어야

기- 개개인마다 다름. 악으로 흐를 가능성. 부단한 수련으로 통제하고 다스리기

실학자 정약용은 성선설에 바탕을 둔 기존의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할 줄 아는 분별 능력을 갖춘 윤리적 욕구라고 말하며 ㉠새로운 인성론을 주창하였다. 인간에게는 선을 좋아하는 윤리적인 욕구만이 주어졌을 뿐이므로 선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선을

실천해야만 비로소 도덕성이 갖추어진다는 것이다. 즉 도덕성이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선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실천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실천이 이루어질 때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약용은 선의 실천이 나와 타인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POINT2 주제 독해>

정약용의 새로운 인성론: 선을 좋아하는 욕구만 & 선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 경향성을 이야기. 외부 세계와의 관계까지

<POINT3 세부 정보 독해>

정약용의 윤리적 욕구-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할 줄 아는 분별 능력을 갖춘 것

실학자 최한기는 세계의 모든 존재는 기(氣)라는 보편적인 요소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모든 존재의 본성인 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 선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기는 끊임 없이 활동하고 변화하는 것으로 외부 세계와 소통하면서 선악이 나타난다. 인간의 윤리도 기의 운동과 변화에 합치되면 선하고 도덕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된다. 인간은 감각 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를 경험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지각을 형성하며 이런 지각은 추측에 의해 확장된다. '추측'은 논리적인 추론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윤리적 공부나 실천과 같은 경험적인 부분을 포괄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서성수 국어 독서7

하는 개념이다. 인간이 올바른 추측을 통해 외부 세계와 소통하게 될 때 그것이 선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된다. 추측을 바르게 하지 못해 외부 세계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자기 내면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운동과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처럼 최한기는 외부의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올바른 추측과 부단한 소통으로 도덕성이 실현되는 공동체의 세계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POINT2 주제 독해>

최한기의 새로운 도덕론: 모든 것의 본성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기에 합치되면 즉 올바른 추측을 통해 외부 세계와 소통할 때 선

: 경향성을 이야기. 외부 세계와의 관계까지

<POINT3 세부 정보 독해>

최한기의 기- 모든 존재의 본성.시간과 공건을 초월하여 영원 불멸X. 그 자체 선택X

추론- 논리적 추론+사회적 관계에서의 윤리적 공부나 실천 같은 경험적 부분 포괄

결국 성리학은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내면적 수양을 강조하였으며, 정약용과 최한기는 실천과 소통을 중시하는 경험주의적 세계관을 토대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도덕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POINT2 주제 독해>

성리학과 실학의 비교- 형이상& 내면 수양 VS 실천과 소통의 경험 주의적

<어휘>

수양- 갈고 닦음

경험- 직접 해보기. 감각, 관찰. 이 감각적인 접촉에 선험적인 개념이 달라붙어 인식이 만들어짐

지각- 인식. 알아차림 EX) 분필이 딱딱하고 희다라는 것을 지각하다.

보편적-어디에나 존재하는. 개별을 뛰어넘은

<독해+>

/정약용의 도덕성/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하나의 욕구와 경향성으로 받아들였음. 이 욕구에 맞게 자신이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도덕적 삶의 핵심! 실천해야 욕구가 실현된 것!

/형이상학/

형이상학은 전통적으로는 구체적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존재의 근본을 탐구하는 것

여기서는 모든 인간과 사물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성의 이치를 강조하는 것을 의미!

8.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① 성리학은 경험주의적 세계관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해설: 경험 주의적 세계관은 정약용 등으로 워허야 하기에 성리학과는 어울리지 않음

② 성리학에서는 본성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해설: 성리학에서는 본성은 선천적인 이

서성수 국어 독서7

③ 성리학에서와 달리 최한기는 본성을 절대 선한 것으로 보았다.

해설: 성리학은 본성을 이로 보고 이것을 선으로 인식, 최한기는 본성을 기로 보고 이것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선악이 없는 것으로 봄

④ 성리학에서는 기는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해설: 성리학에서는 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음

⑤ 성리학에서는 개개인의 도덕성의 차이가 이(理)의 개별적 속성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다.

해설: 성리학에서는 개개인의 도덕적 차이가 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함

9. ㉠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과 의로움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나아가 호연지기가 천지에 가득 차게 되어 모든 덕을 갖추게 된다. 반대로 날마다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이익으로 유혹하면 개나 돼지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된다.

ㄱ: 정약용의 인성론- 선과 악의 구별, 선을 추구하는 욕구 but 선택하고 실천해야 함

보기 독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 덕을 갖춘다고 함

① 사람은 주체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도덕성을 갖추게 된다.

해설: 정약용의 개념으로 보기와 글에 적합함

② 사람은 남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바라는 이기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다.

해설: 정약용은 글에서 이익 추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선함을 추구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했기에 이기적과는 어울리지 않음

③ 사람에게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선한 도덕성이 선천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해설: 시공간의 초월한 선천적 선은 이의 개념으로 성리학과 어울리지 정약용과는 어울리지 않음

④ 사람은 내면에 대한 관조를 통해 경건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 선이 실현된다.

해설: 내면에 대한 관조와 경건한 마음은 성리학적 개념으로 정약용과는 어울리지 않음

⑤ 사람은 감각을 통해 경험을 쌓고 추측을 통해 주변 사물과 소통하며 도덕성을 갖추게 된다.

해설: 감각적 경험과 추측 등은 최한기의 개념으로 정약용과 어울리지 않음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성수 국어 독서7

조선 후기에는 외부와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는 어려움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 관리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에 집착해 백성은 어려움을 겪었고, 나라는 더욱 위기에 빠졌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학자들은 대안을 모색하려 했다.

보기: 성리학의 수호자였던 관리자들이 사리사욕에 집착하다 보니 오히려 큰 사회적 혼란

① 정약용은 부정한 관리들이 사리사욕을 채웠다 하더라도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겠군.

해설: 선에 대한 욕구 충족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기에 사리사욕만 충족한 행동은 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

② 정약용은 백성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들 이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겠군.

해설: 정약용은 도덕적 삶을 위해서는 나와 타인의 관계와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모두 선의 실천이 일어나야 한다고 함. 백성과 관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와 연결되기에 참

③ 최한기는 여러 관리들이 타고난 악한 기로 인해 부정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겠군.

해설: 최한기의 기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타고난 악과는 관련이 없음

④ 최한기는 본분을 망각한 관리들의 모습은 기의 운동과 변화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겠군.

해설: 최한기는 악을 기운 운동과 변화에 합치되

지 못하는 것. 올바른 추측을 통해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따라서 참

⑤ 최한기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리들이 당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추측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겠군.

해설: 최한기의 입장에서는 선을 위해서는 외부 세계에 관한 올바른 추측과 소통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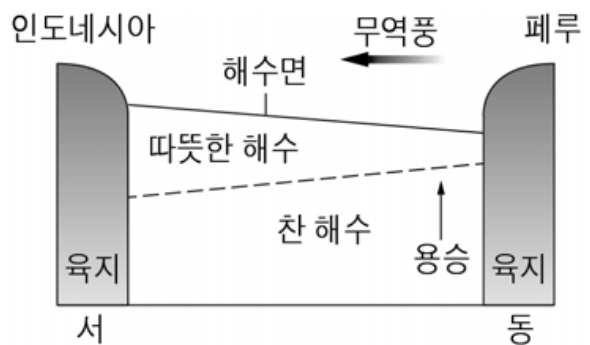
[11-]2016 7월 모의고사

지구의 여러 곳에서 장기간에 걸친 가뭄, 폭염, 홍수, 폭우 등과 같은 이상 기후가 발생하여 인간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원인 중에는 ㉠ 엘니뇨와 ㉡ 라니냐가 있다.

<POINT1 서론 독해>

1. 엘니뇨& 라니냐- 이상 기후의 원인

2. 엘니뇨와 라니냐가 어떻게 이상 기후를 만들어 내는지 예측



<평상시 적도 부근 태평양의 연직 단면>

평상시에는 위의 그림과 같이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에 있는 남아메리카 페루 연안으로부터 서쪽으로 무역풍이 지속적으로 분다. 이 무역풍은 동쪽에 있는 따뜻한 표층수를 서쪽 방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서성수 국어 독서7

향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서태평양 쪽에서는 두껍고 동태평양 쪽에서는 얇아진다. 이와 함께 남아메리카 페루 연안에서는 서쪽으로 흘러 가는 표층수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차가운 심층 해수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나게 된다.

〈POINT2 주제 독해〉

평상시의 적도 부근에서의 현상- 서쪽 무역풍, 따뜻한 해수의 차이, 용승

〈POINT3 세부 정보 독해〉

용승- 차가운 해수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것

이 결과 적도 부근 동태평양 페루 연안의 해수면 온도는 같은 위도의 다른 해역보다 낮아지고, 적도 부근 서태평양에서의 표층 해수의 온도는 높아지게 된다. 표층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해수가 증발하여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고, 따뜻한 해수가 공기를 데워 상승 기류를 발생시켜 저기압이 발달하고 구름이 생성된다. 이로 인해 해수 온도가 높은 서태평양에 위치한 동남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에는 강수량이 많아진다. 반대로 남아메리카의 페루 연안에는 하강 기류가 발생하여 고기압이 발달하고 맑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

〈POINT2 주제 독해〉

무역풍의 결과 적도 부근에서의 차이- 페루 해수면 온도 낮음, 서태평양 높음, 서태평양 강수량 높음, 동태평양 강수량 낮음

〈POINT3 세부 정보 독해〉

해수 온도 ↑, 공기 중의 수증기량 ↑

서태평양- 따뜻한 해수, 공기 중의 수증기량 많음, 상승기류, 저기압, 구름 발달, 강수량 많음

"반대로"

동태평양- 하강 기류, 고기압, 맑고 건조, 가능하면 온도가 낮기에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 적다도 유추!

적도 부근 태평양의 무역풍은 2~6년 사이로 그 세기가 변하는데, 이에 따라 적도 부근 태평양의 기후 환경은 달라진다.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지면 태평양 동쪽의 따뜻한 표층수를 서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진다. 이로 인해,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용승이 약해지며 해수면의 온도는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따뜻한 표층수가 동쪽에 머무르면, 적도 부근 서태평양은 평상시에 비해 해수면의 온도와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고, 적도 부근 동태평양은 해수면의 온도와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는데 이 현상이 엘니뇨이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평상시에 비해 강수량이 감소하여 가뭄이 발생하고, 대규모 산불이 일어나기도 한다. 반면에 페루, 칠레 등에서는 평상시보다 많은 강수량을 보이면서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등 이상 기후가 나타나게 된다.

〈POINT2 주제 독해〉

무역풍의 세기 변화의 결과- 엘니뇨, 서태평양은 평상시에 비해 가뭄&산불, 동태평양-홍수

〈POINT3 세부 정보 독해〉

엘니뇨- 서태평양은 해수면의 온도와 높이가 낮아지고 동태평양은 해수면의 온도가 높이가 높아지는 것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서성수 국어 독서7

서태평양- 수면 온도, 해수면의 높이.강우량(+저기압. 공기 중의 수증기량.) ↓

동태평양- 수면 온도, 해수면의 높이.강우량(+공기 중의 수증기량.) ↑ 고기압 ↓

한편,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해지면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온도와 해수면의 높이가 평상시보다 더 낮아지고 적도 부근 서태평양의 해수면의 온도와 해수면의 높이가 평상시보다 더 높아진다. 이런 현상을 라니냐라고 한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동남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홍수가 잦아지거나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페루,칠레 등에서는 평상시보다 더 건조해져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기압은 평상시보다 상승하고 서태평양의 기압은 평상시보다 하강하여 두 지역의 기압차는 평상시보다 더 커진다.

* 용승: 표층 해수의 이동에 의해 심층의 찬 해수가 상승하는 현상. _

<POINT2 주제 독해>

무역풍의 세기 변화의 결과- 라니냐. 서태평양은 평상시에 비해 홍수, 이산 기온, 동태평양-가뭄, 기압차 커짐

<POINT3 세부 정보 독해>

라니냐- 서태평양은 해수면의 온도와 높이가 높아지고 동태평양은 해수면의 온도가 높이가 낮아지는 것

서태평양- 수면 온도, 해수면의 높이.강우량(+저기압. 공기 중의 수증기량.) ↑

동태평양- 수면 온도, 해수면의 높이.강우량(+공

고기압.공기 중의 수증기량.) ↓

차이가 더 커짐

<독해+>

과정 원리 한 번 더 CHECK!

표층 해수의 온도가 ↑/해수 증발&수증기량 ↑

따뜻한 해수/상승기류, 저기압, 구름

1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상들을 제시하고 그 현상들의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해설: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현상을 설명하고 가뭄과 홍수 기압차 등의 영향을 설명

② 가설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검증하고 있다.

해설: 가설이 등장하지 않음

③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해설: 해결책이 등장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도 어려움

④ 현상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유용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해설: 유용성 즉 활용할 수 있는 이득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⑤ 현상과 관련된 이론을 소개하고 그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해설: 이론과 한계는 모두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서성수 국어 독서7

어려움

1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도 부근 서태평양에서 표층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상승 기류가 발생한다.

해설: 표층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량이 많아지고, 상승기류가 강해 저기압이 형성되고 강수량이 많아짐

② 평상시에 무역풍은 적도 부근 태평양의 표층수를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해설: 무역풍은 서쪽으로 부는 바람으로 따뜻한 표층수를 서쪽으로 이동시킴

③ 동태평양 페루 연안에서 용승이 일어나면 같은 위도의 다른 해역보다 페루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다.

해설: 글에 따르면 용승은 차가운 해수가 위로 올라오는 것으로 해수의 온도는 낮아져야 함

④ 평상시 적도 부근 서태평양에 저기압이 발달하면 적도 부근 서태평양에 위치한 동남아시아의 강수량이 많아진다.

해설: 저기압의 발생은 상승기류 발생, 공기중의 수증기량& 강수량 증가를 이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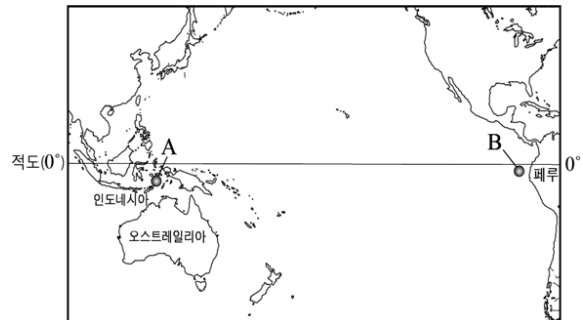
⑤ 평상시에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따뜻한 표층수가 서쪽으로 이동하여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얇아진다.

해설: 그림에서처럼 무역풍으로 인해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밀리고 이로 인해 해수

층의 두께가 얇아짐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그림을 활용하여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보기 독해:

서태평양- 상승기류, 저기압, 해수면의 높이와 온도 모두 높음, 강수량 많음

동태평양- 하강기류, 고기압, 해수면의 오도와 높이 모두 낮음, 강수량 적음

① A 해역의 표층 해수의 온도는 ㉠일 때보다 ㉡일 때 더 높다.

공통 해설: ㉠ 때는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져 A지역은 상승기류, 고온, 강수량 등의 특징이 약해지고 B지역은 하강기류, 고기압, 낮은 온도, 적은 강수량 등의 특징이 약해짐. 두 지역의 대립적인 속성이 줄어들었다고 인식해도 가능

㉡일 때는 무역풍의 세기가 강해져 A지역은 상승기류, 고온, 강수량 등의 특징이 강해지고 B지역은 하강기류, 고기압, 낮은 온도, 적은 강수량 등의 특징이 강해짐. 두 지역의 대립적인 속성이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서성수 국어 독서7

강화된다고 인식해도 가능

해설: 서태평양 지역의 따뜻한 해수면의 특징은 엘니뇨때 약화되고 라니냐때 강화됨

② B 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은 ㉠일 때보다 ㉡일 때 더 두껍다.

해설: 라니냐때 무역풍의 세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동태평양 지역에서 따뜻한 해수면은 더욱 동태평양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로 인해 얇아짐

③ ㉠일 때, A 해역의 해수면의 높이는 평상시보다 낮아진다.

해설: 엘니뇨 일 때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져 서태평양으로부터 따뜻한 해수가 조금 밀려들게 되고 그로 인해 해수면의 높이는 낮아짐

④ ㉠일 때, A 해역 부근 지역에서는 가뭄, 산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설: 엘니뇨 일 때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져 서태평양으로부터 따뜻한 해수가 조금 밀려들게 되고 그로 인해 공기 중의 수증기량과 강우량이 줄고 가뭄과 산불 등의 피해가 누적됨

⑤ ㉡일 때, A와 B의 기압 차는 평상시보다 더 크다.

해설: 라니냐 일 때는 강력한 무역풍 때문에 변화를 이끄는 따뜻한 해수의 이동이 더욱 커져 평상시보다 차이가 더 커짐

[14-]2016 7월 모의고사

기업들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끝없이 경쟁한다. 이러한 경쟁의 전략으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기업인수합병이라고 한다. 이는 기업 간의 결합 형태에 따라 수평적, 수직적, 다각적 인수합병으로 ㉠나눌 수 있다.

<POINT1 서론 독해>

1. 기업 인수합병- 이익의 극대화/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치기

인수합병- 수직VS 수평 VS 다각화

2. 이익의 극대화의 측면에서 수평 수직 다각화 인수합병 전략이 설명될 것을 예측

먼저 수평적 인수합병은 같은 업종 간에 이루어지는 인수합병이다. 예를 들면 두 전자 회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수평적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경쟁 관계에 있던 회사가 결합하여 불필요한 경쟁이 줄고 이전보다 큰 규모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인수 합병한 기업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생산 단가가 낮아져 가격 경쟁력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수평적 인수합병 이후에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일어날 경우, 이는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POINT2 주제 독해>

수평적 인수합병의 특징(같은 업종간. 경쟁 줄고. 큰 규모. 규모의 경제.시장 점유율)& 제재

수직적 인수합병은 동일한 분야에 있으나 생산 활동 단계가 다른 업종 간에 이루어지는 인수합병이다. 이러한 수직적 인수합병은 통합의 방향에 따라 전방 통합과 후방 통합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원자재를 공급하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서성수 국어 독서7

는 기업과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자동차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을 통합하면 후방 통합이고, 자동차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을 통합하면 전방 통합이 된다. 이렇게 수직적 인수합병이 @ 이루어지면 생산 단계의 효율성이 증가하여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수합병한 기업 중 특정 기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POINT2 주제 독해〉

수직적 인수합병의 특징(동일 분야, 다른 단계, 효율성증가, 거래 비용 감소, 원재료 안정 공급)

&문제

〈POINT3 세부 정보 독해〉

전방 통합-우리 기업이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을 통합

후방 통합-우리 기업에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을 통합

마지막으로 다각적 인수합병은 서로 관련성이 적은 기업간의 결합이다. 예를 들면 한 회사가 전자 회사, 건설 회사, 자동차 회사를 결합하여 하나의 회사를 만드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만약 건설 회사의 수익성이 낮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다른 회사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킨다면 기업의 안정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업이 외형적으로만 비대해질 경우,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POINT2 주제 독해〉

다각적 인수합병의 특징(연관성 적음, 위험분산, 수익성의 유지)& 문제

기업은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합병을 통한 외적인 성장에만 @치우쳐 신기술 연구 등과 같은 내적 성장을 위한 투자에 소홀할 수 있다. 또한 인수합병 과정에서 많은 직원이 해직되거나 전직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조직의 인간관계가 깨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인수합병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규모의 경제: 생산 요소 투입량의 증대(생산 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비 절약 또는 수익향상의 이익.

* 시장점유율: 경쟁 시장에서 한 상품의 총 판매량에서 한 기업의 상품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율.

* 거래비용: 각종 거래 행위에 수반되는 비용.

〈POINT2 주제 독해〉

인수합병의 장점(규모 확대)과 단점(혁신 상실)

〈POINT3 세부 정보 독해〉

시장 점유율- 한 기업의 상품 판매량/ 총 판매량. "수익" "기업의 상품 판매량↑, 점유율↑"

〈독해+〉

/수평적 인수합병/

불필요한 경쟁이 줄어들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됨은 맞음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서성수 국어 독서7

그러나 생산량의 증가가 바로 생산단가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여기에 규모의 경제라는 조건이 추가되어야 함!

/거래 비용- GRAPH/ 배경지식/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시장에서 거래할 때 대상자를 찾는 비용 그리고 협상하는 비용 등을 포함

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직과 기업들이 만들어지게 됨

다만 조직을 만들 때는 행정적 비용 관리 비용 등이 들기에 비용들 간의 차이를 따져야 함

/다각화-배경지식/

사업의 다각화는 각 사업간의 매출의 비율 그리고 사업간의 연관성에 따라 결정된다.

문제는 많은 경우 경영자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소비자의 수준에서 합리적인 다각화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다각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14.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기업인수합병이 가지는 의의를 밝히고 있다.

해설: 인수합병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등장하고 있지 않음

② 기업인수합병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해설: 인수합병에 대한 쟁점도 없으며 통시적 서술 즉 시간의 흐름과 변화에 따른 서술을 보

이고 있지도 않음

③ 기업인수합병의 개념을 살펴보고 기업인수합병의 유형을 나누어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해설: 첫 문단에서 인수합병의 개념을 이후 문단에서 수직적, 수평적, 다각적 인수 합병을 설명함

④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상반된 견해의 문제점을 각각 지적하고 기업인수합병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해설: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상반된 견해도 새로운 방법도 등장하고 있지 않음

⑤ 기업인수합병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분석하고 이러한 조건들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해설: 인수 합병의 조건들은 등장하고 있지 않음

1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은 인수합병을 통해 이익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해설: 첫 문단의 인수 합병의 정의를 보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을 찾을 수 있음

② 기업은 수직적 인수합병을 통해 생산 단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해설: 수직적 인수합병은 같은 분야 다른 단계의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서성수 국어 독서7

기업을 통합하는 것으로 생산 단계의 효율성, 거래 비용의 감소, 안정적 원자재 등의 장점이 있음

③ 기업이 다각적 인수합병을 한 경우 위험을 분산하여 안정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해설: 다각적 인수합병의 경우에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인수 합병 하는 것으로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음

④ 기업은 수평적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 관계에 있던 기업과 결합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줄일 수 있다.

해설: 수평적 인수합병은 같은 업종 간의 인수합병으로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경우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음

⑤ 기업은 수직적 인수합병을 통해 서로 다른 분야에 있으나 생산 활동 단계가 같은 업종끼리 결합할 수 있다.

해설: 수직적 인수합병은 같은 분야 다른 단계의 기업을 통합하는 것

2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부도 위기에 놓인 A자동차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때 경쟁 관계에 있던 B자동차 회사는 생산 단가를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A자동차 회사 노조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A자동차 회사와의 인수합병에 성공했다. 이후, A자동차 회사와 결합한 B자동차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매우

높아졌으며,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후 B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철강 회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인수합병하여 B사가 되었다. 그런데 B사는 신기술 연구에 소홀했던 탓에 자동차 분야에서 C자동차 회사에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보기 독해: 수평적 인수합병, 노조의 반발, 점유율의 상승// 수직적 인수합병, 후방 통합, 실패

① A자동차 회사의 노조가 B자동차 회사와의 인수합병에 반대한 이유는 A자동차 회사가 B자동차 회사에 다각적 인수합병이 되었기 때문 이군.

해설: 같은 업종 간의 통합으로 수평적 인수합병임. 또한 노조의 반대 이유를 인수합병 그 자체로 보기도 어려움

② B자동차 회사가 A자동차 회사를 인수합병한 이유는 가격 경쟁력을 증가시켜 이익을 내려 했기 때문이겠군.

해설: 생산단가를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A회사를 인수하였다는 말이 보기에 있기에 참. 여기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 졌음도 유추할 수 있어야 함

③ B자동차 회사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철강 회사를 후방 통합하였군.

해설: 자동차 회사가 철강회사라는 공급자를 통합한 것이기에 후방통합이 참

④ B자동차 회사에 의해 인수합병된 철강 회사의 경영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B사 전체에 위험이 될 수도 있겠군.

서성수 국어 독서7

해설: 철강회사를 인수합병한 것은 수직적 통합의 예이며 수직적 통합의 경우 인수합병한 한 회사가 잘못된다면 전체 회사가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됨. 따라서 철강회사를 수직적 통합으로 바꾸어 읽어주면 참임을 확인 가능

⑤ B사가 자동차 분야의 경쟁에서 C자동차 회사보다 뒤처진 이유는 신기술 연구에 소홀했기 때문이군.

해설: 보기에 직접적으로 인수합병의 결과 신기술 연구에 소홀 했다는 이야기가 있기에 참

17.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구분할

② ㉡: 실현할

③ ㉢: 추구될

해설: 일어나다는 것은 결과이고 추구하다는 그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임. 따라서 이 둘은 바꿔 쓰기 어려움

④ ㉣: 포함되면

⑤ ㉤: 왜곡되어

[18-] 2017 7월 모의고사

회화 작품에는 점, 선, 면, 형태, 색채와 같은 조형 요소와 통일성, 균형, 비례와 같은 조형 원리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져 있다. 이들은 감상자에게 시각적으로 작용함은 물론 심리적으

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화의 조형 원리 중 하나인 통일성은 화면의 여러 조형 요소들에 일관성을 부여하여 질서를 갖추게 하는 원리를 말한다.

<POINT1 서론 독해>

1. 조형요소- 점.선.면.형태.색채

조형 원리- 통일성, 균형, 비례

통일성- 조형요소에 일관성 부여 질서를 갖추게

2. 다양한 조형요소에 어떻게 일관성을 부여하는지를 예측

㉠회화의 통일성은 시각적인 것과 지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각적 통일성이란 눈으로 볼 수 있는 각 조형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이나 규칙성 등을 통해 통일성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작품을 보는 순간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것으로 형태나 색채 등의 시각적인 조형 요소들로 표현된다. 지적 통일성이란 주제와 관련된 의미나 개념이 통일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즉 사고를 통해 알 수 있는 개념적인 것들이 주제와 연관성을 가지는 통일성을 의미한다. 시각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지는 않더라도 특정 주제에 대해 그와 관련된 것들로 그림을 완성하였다면 이는 지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각적인 통일성이 조형 요소의 형식적 질서라면, 지적인 통일성은 내용에 대한 질서라고 할 수 있다.

<POINT2 주제 독해>

회화의 통일성의 종류(시각적 통일성, 지적인 통일성)와 특징(눈에 보이는 형식적 질서, 내용에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서성수 국어 독서7

대한 질서)

<POINT3 세부 정보 독해>

시각적 통일성-눈으로 볼 수 있는 요소 사이의 유사성. 시각적o

지적 통일성-생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 주제와의 연관성. 개념적으로 연관된 것

통일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인접, 반복, 연속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인접은 각각 분리된 요소들을 가까이 배치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다. 밤하늘에서 별자리를 찾는 일도 몇몇 특정한 별들을 인접시켜 해석함으로써 형상에 따라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문자를 인접시켜 단어를 만드는 것도 통일성의 질서를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복은 부분적인 것들을 반복시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반복되는 것에는 색깔이나 형태, 질감은 물론이고 방향이나 각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속은 어떤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연관을 갖고 이어지게 하여 통일성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연관된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길은 어떤 것에서 연관된 그 다음의 것으로 자연스럽게 옮겨 가게 된다. 시각적으로는 형태나 색채 등이 화면에서 연관되는 것을 의미하고, 지적으로는 주제와 관련된 의미나 개념이 서로 연결되며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제와 관련된 대상들을 연속적이고 유기적으로 배열하여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POINT2 주제 독해>

통일성을 구현하기 위한 인접. 반복. 연속 등의

방법

<POINT3 세부 정보 독해>

인접- 분리된 요소들을 가까이 배치

반복- 부분적인 것을 반복

연속- 연관을 가지고 이어지게 하여 통일성을 부여

통일성은 작품에서 주제를 구현하는 중요한 조형 원리이다. 회화에서 통일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작품 속의 다양한 조형 요소와 그 조형 요소들이 이루는 일관된 질서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했을 때 감상자는 작가가 의도한 작품의 의미에 한발 더 다가서서 작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POINT2 주제 독해>

통일성이 중요한 이유- 일관된 질서에 바탕해야 주제와 작품의 의미를 더욱 잘 파악

<단어>

구현- 보여주고 만드는

보편적으로- 주로

유기적- 연결되게. 부드럽게

<독해+>

/문자의 인접을 통한 단어/

인접을 통한 통일성의 예시임. 여기서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사실은 멀리 멀리 떨어져있는 즉 각각이 분리된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함

또한 통일성의 결과 하나의 주제나 의미를 형성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서성수 국어 독서7

할 수 있음도 파악해야 함

18. 밑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① 회화에서 통일성의 개념

해설: 서론에 여러 조형요소들의 일관성을 부여하는 통일성의 개념을 설명함

② 회화에서 통일성의 종류

해설: 시각적 통일성과 지적 통일성을 구분함

③ 회화의 통일성을 구현하는 방법

해설: 통일성을 구현하는 인접, 반복, 연속을 말함

④ 회화에서 통일성을 잘 구현한 작가들의 작품

해설: 작가들은 등장하지 않음

⑤ 회화에서 통일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작품 감상의 의의

해설: 마지막 문단에서 주제 파악과 작품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음을 이야기 함

19.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각적 통일성은 시각적인 조형 요소들로 표현된다.

해설: 시각적 통일성의 설명을 보면 눈에 보이는 요소들의 즉 시각적인 요소들을 통해 드러남을 알 수 있음

② 회화의 통일성은 작품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조형 요소이다.

해설: 회화의 통일성을 글에 따르면 조형 요소들의 일관성을 통해 작가의 의미와 주제에 더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

다양성은 일관성은 물론 작가의 의도와도 어울리지 않음

③ 회화 작품에는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가 다양하게 어우러져 있다.

해설: 서론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음 도형요소들을 다양한 조형 원리들을 활용해 표현

④ 작품에서 주제와 관련된 대상들을 연속적이고 유기적으로 배열하여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할 수 있다.

해설: 주제와 관련된 대상들 즉 지적 통일성을 갖춘 내용들을 연속으로 배열하는 방법은 통일성을 만드는 인접, 반복, 연속 중 하나임

따라서 참

⑤ 회화에서 통일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면 작가가 의도한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설: 마지막 문단을 보면 통일성은 일관적인 조형 요소들을 배치함으로 주제와 작가의 의도에 한 층 더 다가갈 수 있게 한다.

20. ㉠과 관련하여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서성수 국어 독서7



① 클림트의 「너도밤나무 숲」은 화면의 근경에서 원경에 이르기까지 점점 작아지는 수직의 너도밤나무들을 반복하여 표현했다. 각각의 나무들은 개별적으로 보이기보다는 전체적인 숲의 모습으로 보이며 시각적 연관을 통해 통일성을 느끼게 한다. 또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낙엽 등 가을과 관련한 황금 색깔로 배경을 가득 채워 늦가을 숲의 정취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보기 독해: 시각적인 밤나무의 반복, 전체숲, 연관!, 색채라는 것도 반복, 주제를 잘 표현

① ①은 근경에서 원경으로 갈수록 나무의 형태를 확대하여 시각적 통일성을 구현하고 있군.

해설: 나무는 원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짐

② ①은 곧게 뻗은 나무의 수직적인 형태를 반복하는 반복의 방법을 사용해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구현하고 있군.

해설: 나무들이 반복되고 있으며 반복은 대표적인 통일성을 만드는 원리

③ ①은 나무 하나하나의 모습을 개별적으로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연속의 방법을 사용해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구현하고 있군.

해설: 연속은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넘어가게 하는 통일성의 원리로 전체 숲을 바라보고 함. 따라서 개별적 나무를 도드라져 보이게 했다는 말은 거짓

④ ①은 바닥에 떨어진 낙엽과 서 있는 나무를 분리하여 서로멀리 배치하는 인접의 방법으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구현하고 있군.

해설: 인접은 각각의 요소를 가깝게 배치해 하나의 의미와 통일성을 부여하는 방법 따라서 멀리 배치하는 인접자제가 거짓

⑤ ①은 작품을 보는 순간 직접적으로 보이는 낙엽의 황금 색깔을 통해 계절의 순환이라는 주제를 보여 주는 지적 통일성을 구현하고 있군.

해설: 직접적으로 보이는 시각적 요소는 시각적 통일성과 연결됨

[21-/ 같이 하기] 2017 4월 모의고사

‘아낭케’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나 필연성 등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신화적 상상력으로 세계의 현상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에 아낭케는 ‘운명으로서의 필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철학적 사유가 생겨남에 따라 아낭케는 일종의 이론적인 개념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낭케는 세계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아낭

서성수 국어 독서7

케는 세계의 현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인 기계론적 관점과 목적론적 관점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POINT1 서론 독해>

1. 아낙게- 운명이나 필연성 등을 상징. 운명으로서의 필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기계론적 VS 목적론적

2. 철학적 관점으로서의 아나테가 기계론적 관점과 목적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예측. 기계론적인 관점과 목적론적인 관점에 대한 설명을 예측

기계론적 관점은, 세계에는 어떤 궁극의 목적이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기계적인 법칙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세계는 정교한 기계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질량, 속도 등의 역학적 개념들만으로 세계의 현상들을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세계가 오늘날과 같이 변화한 것에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없고 오직 인과 관계의 법칙성만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와 달리, 목적론적 관점은, 세계에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전제되어 있고 세계는 이것을 향해 운동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세계가 오늘날과 같이 변화한 것은 이상적인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는 완전하지 않다고 본다.

<POINT2 주제 독해>

기계론적 관점VS 목적론적 관점

<POINT3 세부 정보 독해>

기계론적 관점- 궁극의 목적X. 기계론적 법칙O.

역학적 개념들만으로 설명

목적론적 관점- 궁극적인 목적O. 완전성의 개념

기계론적 관점에서 아낙게는 법칙성이라는 의미의 필연을 뜻한다. 데모크리토스의 이론은 이런 기계론적 관점의 아낙게를 잘 보여 준다. 이성의 작용도 일종의 원자 운동이라고 본 데모 크리토스는 모양, 위치, 배열이라는 특징을 지니는 원자들이 특정하게 부딪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정해진 결과들이 나온다는 역학적인과 관계의 법칙만을 인정한다. 이런 법칙성이 바로 기계론적 관점에서 말하는 아낙게이다.

<POINT2 주제 독해>

기계론적 관점에서의 아낙게(법칙성, 역학적인 인과 관계의 법칙성)

<POINT3 세부 정보 독해>

아낙게+기계론적- 법칙성

이와 달리 목적론적 관점에서 아낙게는 질료적 조건이라는 의미의 필연을 뜻한다. 여기서 '질료(質料)'는, 이상적인 목적인 '형상(形相)'이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조건이다. 목적론적 관점을 지닌 플라톤은, 현실에 구현되기 이전의 형상은 그 자체로 완벽한데, 질료가 형상을 그대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오차나 무질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플라톤이 생각하는 아낙게는, 형상이 현실에 구현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질료적 조건으로서의 필연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동시에 질료가 형상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아낙게는 극복해야 할 어떤 것이라는 의미도 지니게 된다.

서성수 국어 독서7

〈POINT2 주제 독해〉

목적론적 관점에서의 아낭케(질료적 조건, 이상적인 목적이 현실에서 나타나기 위해 필요한 것, 불완전하고 극복되어야 할 것)

〈POINT3 세부 정보 독해〉

질료- 형상이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한 조건

형상- 이상적인 목적

〈어휘〉

전제- 앞에 내세우다. 생각하다. 있다

이상- 가장 궁극의 목표. 추구하는 것

구현- 나타나고 만들어지다

〈독해+〉

/궁극의 목적/

궁극의 목적이 있다는 말은 추구해야 하는 어떤 목표와 완전한 무엇이 있다는 것

이런 관점에서 떠오를 수 있는 생각은 가치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임.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어떤 절대적 가치가 있기에 이 가치에 더욱 근접한 것과 덜 근접한 것이 존재하게 됨

글에서 목적론은 더 우월한 궁극의 목표와 부족하고 오류 많은 현실세계를 이야기 한 것처럼 이 논의 하에서는 우월성과 변화 같은 이야기가 활발해짐

조금 더 독해를 해 인과론적 법칙만 있는 기계론은 이러한 가치 평가를 동반 하지 않기에 우월성의 논의와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인접- 분리된 요소들을 가까이 배치

/이성의 작용도 일종의 원자 운동/

이는 기계론적 관점에서의 아낭케를 보여주는 말로 궁극적인 목표의 부정과 역학적 요소& 인과 관계 만을 긍정하는 입장을 보여줌

이 역시 법칙성과 연결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아낭케는 운명이나 필연성을 신격화한 존재였다.

해설: 첫 문단에서 알 수 있듯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낭케는 운명을 결정하는 여신이자 운명으로서의 필연을 의미함

② 데모크리토스는 역학적 인과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이성의 작용을 인정한다.

해설: 데모크리토스는 기계론적 관점으로 읽히며 이성의 작용도 원자의 작용으로 즉 역학적 인과 관계로 설명함

③ 아낭케는 세계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해설: 아낭케는 목적론과 기계론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④ 플라톤은 질료가 형상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서 현실에 오차가 있다고 생각했다.

해설: 플라톤은 아낭케가 질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형상을 온전한 것으로 질료는 이 형상이 현실로 들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봄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서성수 국어 독서7

⑤ 아낭케라는 개념의 이론적인 성격은 철학적 사유가 생겨난 것에서 비롯되었다.

해설: 첫 문단에서 알 수 있듯 운명으로서의 필연인 아낭케는 기계론과 목적론 등의 철학적 사유가 생겨나면서 이론적인 성격을 가지게 됨

22.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민준: 얼마 전 영화에서, 한 물리학자가 세계는 무엇인가의 지향점이 있어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역학적인 인과 관계에 의해서만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모습을 봤어. 나도 세계가 이런 분명한 법칙성만을 가지고 변한다는 그 물리학자의 생각에 동의해.

지애: 그래?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세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이상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기 독해: 민준- 기계론, 역학적인 인과 관계만 // 지애- 목적론, 궁극적인 이상, 우월성

① '민준'과 '지애'는 모두 세계가 변화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해설: 기계론이든 목적론이든 세계의 변화와 진화를 이야기 하기 때문에 세계가 변화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② '민준'은 세계를 원인과 결과의 법칙성만으로

로 이해하려 한다는 점에서 기계론적 관점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설: 민준은 인과 법칙의 법칙성만을 강조하고 있기에 기계론적 관점

③ '지애'는 세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이상의 존재를 확신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관점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설: 지애는 궁극적인 이상을 강조하고 있고 이는 세계가 이상을 추구하면서 진화하고 있다는 목적론적 관점과 연결됨

④ '민준'은 '지애'와 달리 역학적인 법칙들만을 세계의 유일한 원리라고 보기 때문에 세계를 정교한 기계라고 여길 것이다.

해설: 민준은 기계론적 관점을 믿는다는 것은 역학적인 법칙만을 강조, 기계로 인식과 연결됨

⑤ '지애'는 '민준'과 달리 세상이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세계를 완전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해설: 목적론적 관점은 세계가 궁극의 목적과 이상을 향해 진화한다는 것과 연결되기에 현재의 세계는 미완이며 하나의 과정.

23. 윗글의 ㉠과 <보기>의 ㉡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파툼'은 일반적으로 운명을 의미하는데, ㉡스토아 학파가 생각하는 파툼은 인과 관계의 연쇄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법칙성이자 동시에 신

서성수 국어 독서7

의 섭리인 질서이다. 스토아 학파는 세계가 이에 의해 이미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보고, 인간은 이러한 법칙성을 이성을 통해 터득해 나가고 그 깨달음을 통해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보기 독해:

ㄴ/세계를 인과 관계의 연쇄로 바라보고 이런 세계의 법칙성과 필연성을 강조함. 기계론적 관점과 유사

다만 이런 파툼은 신(어떤신?)의 섭리이자 이성을 통해 이런 파툼을 깨닫는다면 초연 가능!

① ㉠은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해설: 아나키스는 질료적 조건으로의 필연으로 완전한 형상에 비해서는 오차가 존재하는 것!

② ㉡은 세계의 미결정성을 공고히 한다고 할 수 있다.

해설: 파툼은 세계의 필연성과 법칙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 이 인과 관계를 알면 초연해질 수 있음

③ ㉢은 신적인 세계를, ㉣은 원자로 구성된 세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해설: ㉠은 궁극적인 목적론과 연결되는데 이것은 신적 신화적 상상력 보다는 철학적 사유와 고민에서 등장하는 것! ㉡은 기계론과 연결되기에 원자적 기계론적 관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판단하기 어려움

④ ㉤은 형상이 구현되기 위한 조건이고, ㉥은 법칙성을 지닌 질서라 할 수 있다.

해설: ㉠은 질료적 속성의 필연성으로 형상이 구현되기 위한 조건이고, ㉡은 보기의 내용대로 법칙성의 질서를 의미함

⑤ ㉦은 무질서를 극복한 결과이고, ㉧은 이성을 통해 터득할 수 있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해설: 아나키스의 질료적 속성은 형상에 비해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질서는 여전히 남아 있음